

국어 정도 형용사 구문의 의미

— 원구문(positive sentence)을 중심으로 —

정 인 수 *

〈차 례〉

- | | |
|--------------------|---------------------|
| 1. 머리말 | 3.1 개방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
| 2. 척도의 유형과 원구문의 유형 | 3.2 제한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
| 2.1 척도의 유형 | 3.3. 비대칭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
| 2.2 원구문의 유형 | 3.4. 단항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
| 3. 정도 형용사 구문의 의미 | 4. 마무리 |

1. 머리말

의미론의 연구 영역으로는 어휘 층위에 대한 어휘 의미론과 문장 층위의 문장 의미론, 발화 층위의 화용론으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 문장 의미론은 문장이 실제 언어의 기본 단위가 되므로 의미론의 중심 과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형용사 구문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1) ㄱ. 이 건물은 높다.

ㄴ. 이 건물이 저 건물보다 더 높다.

(1) ㄴ은 비교어구인 ‘이 건물’과 기준 어구인 ‘저 건물’ 그리고 비

* 영남대학교 강사

교소인 ‘보다’로 이루어져 있으나¹⁾, (1)ㄱ은 (1)ㄴ과 달리 기준 어구나 비교소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비교구문(comparative sentence)이라 불리워진 (1)ㄴ과 (1)ㄱ으로 형용사의 구문을 크게 둘로 나누기로 하였다.²⁾ 그리고 (1)ㄱ과 같은 유형의 문장들을 원구문(positive sentence)이라 부를 것이다.

본 연구는 (1)ㄱ과 같은 원구문을 중심으로 하여 이것의 의미를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절에서도 정도 형용사에 의해 정의되는 척도(scale)의 유형에 따라 원구문의 유형을 세분한다.

3절에서는 2절에서 나눈 원구문들의 의미를 살펴 보고, 4절은 본론을 요약한다.

2. 척도의 유형과 원구문의 유형

2.1 척도의 유형

정도성(gradability)이란 정도부사에 의하여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어휘의 능력인데, Rusiecki(1985)는 이러한 정도성이 형용사의 의미구조에서 관련된 차원(dimension)을 등급매기는 척도의 실체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Cruse(1976)는 모든 정도 형용사의 기저에는 그들의 속성에 대한 값을 가지는 척도가 있다고 하였다.

척도는 하나의 형용사 또는 한 쌍을 이루는 두 형용사에 의하여 정의될

1) 비교 어구, 기준 어구, 그리고 비교소란 용어는 김정대(1993:16~17)에서 사용된 것들이다. 이승명(1992)에서는 비교소를 비교표지라 하였다.

2) Rusiecki(1985:42~43)는 영어의 형용사 구문을 non-comparative sentence와 comparative sentence의 둘로 나누었다. ‘Aer than’, ‘less A than’, ‘as A as’, ‘Aest’ 구조의 결여가 있으면 전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자라고 하였다.

수 있다. Rusiecki(1985)는 하나의 형용사에 의해 정의되는 척도를 단항 척도(unary scale)라 하고 한 쌍을 이루는 두 형용사에 의하여 정의되는 척도를 이항 척도(binary scale)라 하였다.

(1) 개방척도

반의어를 이루는 두 형용사가 정의하는 척도 가운데 두 끝이 동일하여 척도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 질 수 있는 것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반의어의 쌍으로 ‘길다 - 짧다’와 ‘높다 - 낮다’를 들 수 있다.

반의어를 이루는 두 형용사는 이들이 정의하는 척도를 둘로 나눌 때 한 형용사는 기준보다 상위의 영역에 그리고 나머지 한 형용사는 어떤 기준보다 하위의 영역에 놓일 수 있다. 즉, ‘길다’와 ‘높다’는 상위의 영역에 놓이며 ‘짧다’와 ‘낮다’는 하위의 영역에 놓인다.

‘길다’와 ‘높다’는 ‘조금 길다, 조금 더 길다, 아주 길다’나 ‘조금 높다, 조금 더 높다, 아주 높다’에서 볼 수 있는 항상 더 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이 위치하는 영역의 끝을 표시하는 단어(형용사나 명사)가 없다. 이런 사실들은 ‘길다’와 ‘높다’가 위치하는 상위 영역의 끝이 개방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짧다’와 ‘낮다’가 위치하는 하위 영역의 끝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길이가 없는 대상물, 즉 0(zero)인 상태의 대상물을 두고 길이가 ‘짧다’라 하지 않고 높이가 없는 대상물, 즉 0(zero)인 상태의 대상물을 두고 높이가 ‘낮다’라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위치하는 하위 영역의 끝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짧다’와 ‘낮다’가 위치하는 하위 영역의 끝은 개방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길다 - 짧다’와 ‘높다 - 낮다’는 그들이 위치하는 척도의 두 끝이 개방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척도를 개방척도라 부르기로 하겠다.

(2) 제한척도

개방척도와 같이 척도의 두 끝이 동일하여 척도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여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 질 수 있으나 개방척도와 다른 유형이 있다. 이것에 속하는 예로 ‘차다 - 비다’를 들 수 있다.

‘차다’는 어떤 용기 예를 들면 ‘병’에 어떤 자질 예를 들면 ‘물’이 더 들어 갈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비다’는 어떤 용기(병)에 어떤 자질(물)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차다’와 ‘비다’는 이들이 정의하는 척도의 양 끝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다’와 ‘비다’가 정의하는 척도는 개방척도와 달리 양 끝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양 끝이 제한된 척도를 제한척도라 하겠다.

(3) 비대칭척도

반의어를 이루는 두 형용사가 정의하는 척도 가운데 양 끝이 동일하지 않아서, 척도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그것이 완전히 포개어 질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에 속하는 예로 ‘깨끗하다 - 더럽다’를 들 수 있다. 어떤 것이 ‘깨끗하다’고 할 때 ‘더러움’이란 자질의 영역 끝이 완전히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깨끗하다’가 위치하는 척도의 영역 끝이 제한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럽다’고 할 때는 ‘더럽다’가 위치하는 척도의 끝은 항상 더 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이 위치하는 척도 영역의 끝을 표시하는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더럽다’가 위치하는 척도의 영역 끝은 개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깨끗하다 - 더럽다’가 정의하는 척도는 한 쪽의 끝은 제한되나 다른 한 쪽의 끝은 개방됨을 보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척도를 비대칭 척도라 부르기로 하겠다.

(4) 단항척도

한 쌍의 형용사에 의하여 정의되는 형용가 아니라 하나의 형용사에 의하여 정의되는 척도가 있다. 여기에 속하는 예로 ‘뵤다’, ‘푸르다’ 등을 들 수 있다.

‘뵤다’와 ‘푸르다’는 그것들에 대해 항상 더 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으

며, 그것들이 위치하는 척도의 시작과 끝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들에 의해 정의된 척도의 양 끝은 개방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붉다’, ‘푸르다’가 정의하는 이런 척도를 단항척도라 부르기로 하겠다.

2.2 원구문의 유형

2.1에서 정도 형용사에 의해 정의되는 척도로 개방척도, 제한척도, 비대칭척도, 그리고 단항척도의 4가지가 있음을 보았다.

(2)ㄱ. 이 연필은 길다.

ㄴ. 저 연필은 짧다.

(3)ㄱ. 이 병은 물이 차다.

ㄴ. 이 병은 물이 비었다.

(4)ㄱ. 이 방은 깨끗하다.

ㄴ. 저 방은 더럽다.

(5)ㄱ. 이 꽃은 붉다.

ㄴ. 저 꽃은 푸르다.

위의 (2)ㄱ과 ㄴ은 개방척도를 정의하는 ‘길다’와 ‘짧다’를 서술어로 한 것이고, (3)ㄱ과 ㄴ은 제한척도를 정의하는 ‘차다’³⁾와 ‘비다’를 서술어로한 문장들이다. 그리고 (4)ㄱ과 ㄴ은 비대칭척도를 정의하는 ‘깨끗하다’와 ‘더럽다’를 서술어로 한 문장이며, (5)ㄱ과 ㄴ은 단항척도를 정의하는 ‘붉다’와 ‘푸르다’를 서술어로한 문장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들에 의해 정의된 척도의 유형에 따라서 3절에서 논의 될 형용사 구문을 위에서 본 (2)~(5)의 4가지의 유형으

3) 국어 사전에서 ‘차다’는 자동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차다’가 사용되는 분포가 ‘비다’와 동일하다. 또한 ‘차다’와 ‘비다’는 반의어를 이루며 이것들이 하나의 척도를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다’가 사용된 원구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로 나누기로 하겠다.

3. 정도 형용사 구문의 의미

3.1 개방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다음의 (7)ㄱ과 ㄴ은 개방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크다’와 ‘작다’를 서술어로 하는 원구문들이다.

(7)ㄱ. 철수는 키가 크다.

ㄴ. 영수는 키가 작다.

(7)ㄱ에서 ‘크다’는 ‘철수’가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키보다 ‘더 크다’라는 의미이고, (7)ㄴ에서 ‘작다’는 ‘영수’가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키보다 ‘더 작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런데 (7)ㄱ과 ㄴ에서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범주, 즉 지시집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철수’나 ‘영수’가 속하는 범주로 ‘우리 학급’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 동일 수도 있으며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 일 수도 있다. 따라서 (7)ㄱ은 (8)ㄱ~ㄷ과 같은 의미를 그리고 (7)ㄴ은 (9)ㄱ~ㄷ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ㄱ. 철수는 우리 반의 평균 키보다 더 크다.

ㄴ. 철수는 우리 학교의 평균 키보다 더 크다.

ㄷ. 철수는 같은 나이 또래의 평균 키보다 더 크다.

(9)ㄱ. 영수는 우리 반의 평균 키보다 더 작다.

ㄴ. 영수는 우리 학교의 평균 키보다 더 작다.

ㄷ. 영수는 같은 나이 또래의 평균 키보다 더 작다.

(7)ㄱ과 ㄴ이 각각 (8)ㄱ~ㄷ과 (9)ㄱ~ㄷ의 의미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범주, 즉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지시 집합(reference set)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화자는 내재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7)ㄱ과 ㄴ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할 것 같다.

(10)ㄱ. 우리 반에서 철수는 키가 크다.

ㄴ. 우리 반에서 영수는 키가 작다.

(10)ㄱ과 ㄴ은 (7)ㄱ과 ㄴ처럼 개방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크다’와 ‘작다’를 서술어로 하는 원구문들이다. 그러나 (10)ㄱ과 ㄴ은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범주, 즉 지시집합(reference set)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7)ㄱ이나 ㄴ과 차이가 있다. (10)ㄱ이나 ㄴ은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범주, 즉 지시집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0)ㄱ은 (8)ㄱ의 의미를 지니고 (10)ㄴ은 (9)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ㄱ이 (8)ㄱ~ㄷ의 의미를 (7)ㄴ이 (9)ㄱ~ㄷ 의미를, (10)ㄱ이 (8)ㄱ의 의미를 그리고 (10)ㄴ이 (9)ㄱ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7)ㄱ과 ㄴ 그리고 (10)ㄱ과 ㄴ이 원구문이지만 비교구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이 비교구문과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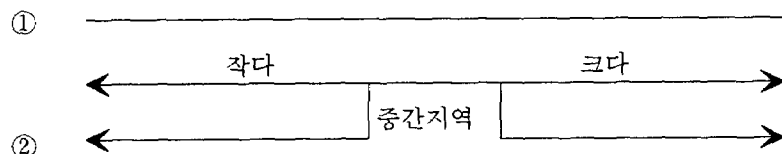
(11)ㄱ. 철수는 영수보다 키가 더 크다.

ㄴ. 영수는 철수보다 키가 더 작다.

4) 김정대(1993 : 25)는 (7) ㄱ과 같은 문장이 비교의 의미를 지닌다는데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11)ㄱ과 ㄴ은 개방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크다’와 ‘작다’를 서술로 하는 비교구문들이다. 여기서 (11)ㄱ의 ‘철수의 키’나 ‘영수의 키’ 철수나 영수가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니 즉, ‘철수의 키’나 ‘영수의 키’는 이들이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보다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11)ㄴ의 ‘철수의 키’나 ‘영수 키’가 철수나 영수가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보다 더 작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철수의 키’나 ‘영수의 키’는 이들이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러나 (7)ㄱ과 ㄴ에서 ‘철수의 키’나 ‘수의 키’는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그들이 속한 범주 속의 평균보다 ‘더다’ 또는 ‘더 작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11)ㄱ과 ㄴ에서 ‘철수의 키’와 ‘영수의 키’의 값이 척도의 전역에 작용하나 (7)ㄱ에서 ‘철수의 키’의 값은 ‘크다’의 영역에만 작용한다. (7)ㄴ에서 ‘영수의 키’의 값은 ‘작다’의 영역에서만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7)ㄱ과 ㄴ 그리고 (11)ㄱ과 ㄴ 사이에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같으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림 1]에서 ①은 (11)ㄱ과 ㄴ에서 ‘철수의 키’와 ‘영수의 키’의 값 작용 영역을 나타내고 ②는 (7)ㄴ에서 ‘영수의 키’의 값의 작용 영역이 ③은 (7)ㄱ에서 ‘철수의 키’의 값의 작용 영역이다.

(12)ㄱ. 우리 반에서, 철수는 영수보다 키가 더 크다.

ㄴ. 우리 반에서, 영수는 철수보다 키가 더 작다.

(12) ㄱ과 ㄴ은 개방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크다’와 ‘작다’를 서술어로 하는 비교구문들이다. (12) ㄱ은 우리 반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인 철수와 영수 가운데 철수의 키가 기준이 되는 영수의 키보다 더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12) ㄴ은 우리 반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인 철수와 영수 가운데 영수의 키가 기준이 되는 철수의 키보다 더 작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12) ㄱ과 ㄴ에서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범주인 ‘우리 반’에서 철수와 영수와의 다른 사람들은 (12) ㄱ과 ㄴ의 기준을 정하는데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 ㄱ과 ㄴ 그리고 (10) ㄱ과 ㄴ은 (8) ㄱ~ㄷ 그리고 (9) ㄱ~ㄷ에서 볼 때,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범주에서 영수와 철수와의 다른 사람들도 기준을 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7) ㄱ과 ㄴ 그리고 (10) ㄱ과 ㄴ이 (11) ㄱ, ㄴ과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10) ㄱ이나 ㄴ과 같은 문장들의 의미적 해석에 대한 본질적 요소는 측정함수(measure function)의 값을 진술하는 것이다. (Rusiecki : 1985 : 68) (10) ㄱ과 ㄴ은 기준을 정하는데 철수와 영수 외의 다른 사람들도 고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범주, 즉 지시집합(neference set)에 의존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10) ㄱ은 철수가 우리반에 속해야 하고 ‘철수의 키’가 ‘기준키’보다 더 커야 한다. 그리고 (10) ㄴ은 영수와 우리반에 속해야 하고 ‘영수의 키’가 ‘기준키’보다 더 작아야 한다. 따라서 (10) ㄱ과 ㄴ의 의미를 형식화하면 각각 다음의 (13) ㄱ과 ㄴ처럼 될 것이고 일반화하면 다음의 (14) ㄱ과 ㄴ처럼 될 것이다.

(13) ㄱ. [철수 $\in$ 우리 반] $\wedge$ [철수의 키 > 기준키]

┌. [영수 ∈ 우리 반] ∧ [영수의 키 < 기준키]

(14) ┐. [비교대상 ∈ 범주(지시집합)] ∧ [비교대상 > 기준]

┌. [비교대상 ∈ 범주(지시집합)] ∧ [비교대상 < 기준]

(7)┐과 ┌에서 ‘철수’와 ‘영수’가 속하는 범주는 (7)┐과 ┌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마음 속에서는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범주에 대한 기준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수’나 ‘영수’가 각각 그 범주 속의 기준보다 크기가 작을 때이므로 (7)┐과 ┌의 의미도 형식화 하면 위의 (14)와 같아 질 것이다.

3. 2 제한 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다음의 (15)┐과 ┌은 제한 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비다’와 ‘차다’를 서술어로 하는 원구문들이다.

(13)┐. 이 병은 물이 비었다.

┌. 이 병은 물이 찼다.

(15)┐은 개방 척도 형용사인 원구문인 (7)┐과 달리 ‘평균적으로 더 비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다’는 어떤 용기, 즉 병에 어떤 자질, 즉 물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5)┌도 (7)┌과 달리 ‘평균적으로 더 차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차다’는 어떤 용기(병)에 어떤 자질(물)이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5)┐과 ┌은 (7)┐, ┌과 달리 비교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사실에서 (15)┐과 ┌이 (7)┐이나 ┌과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비다’는 어떤 자질이 완전히 없는 상태이므로 0(zero)의 값을 주고 ‘차다’는 어떤 자질이 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므로 1의 값을 주어 ‘비다’

와 ‘차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비다(0)

차다(1)

[그림 2]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비다 = 0’이고 ‘차다 = 1’이므로 (15)ㄱ은 ‘이 병의 참 = 0’이라고 할 수 있으며 (15)ㄴ은 ‘이 병의 참 = 1’이라고 할 수 있다.

(16)ㄱ. 이 병은 물이 1/3 비었다.

ㄴ. 이 병은 물이 1/3찼다.

(17)ㄱ. * 철수는 키가 1/3 크다.

ㄴ. * 영수는 키가 1/3 작다.

위의 (16)ㄱ과 ㄴ은 제한척도를 정의하는 ‘비다’와 ‘차다’ 앞에 수적(numerical) 단위를 사용한 문장들이고 (17)ㄱ과 ㄴ은 개방척도를 정의하는 ‘크다’와 ‘작다’ 앞에 1/3이라는 수적 단위를 사용한 문장들이다. 그런데 (16)ㄱ과 ㄴ은 정상적인 표현이 되지만 (17)ㄱ과 ㄴ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비다’와 ‘차다’에 의하여 정의된 척도가 수적으로 등급화될 수 있으나 ‘크다’와 ‘작다’에 의해서 정의된 척도는 수적으로 등급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도 (15)ㄱ과 ㄴ의 문장들과 (17)ㄱ과 ㄴ의 문장들 사이의 의미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앞에서 어떤 용기에 어떤 자질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 값을 1로 주었다. 그러면 1보다 클 수는 없겠는가?

(18) ㄱ. * 이 병은 물이 $1\frac{1}{3}$ 비었다.

ㄴ. * 이 병은 물이 $1\frac{1}{2}$ 비었다.

ㄷ. * 이 병은 물이 $1\frac{1}{3}$ 찼다.

ㄹ. * 이 병은 물이 $2\frac{1}{2}$ 찼다.

(18) ㄱ~ㄹ은 제한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비다’와 ‘차다’ 앞에 1보다 큰 수적 단위를 사용한 문장이다. 그런데 (18) ㄱ~ㄹ은 (16) ㄱ과 ㄴ과 달리 정상적인 표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용기에 어떤 자질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그 값이 1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어떤 용기(이 병)에 어떤 자질(물)이 완전히 들어 갔을 때 1이므로 (16) ㄱ은 척도의 상위 끝인 1로부터 하위 끝인 0(zero) 향하여 $1/3$ 지점을 가리킨다. 그리고 (16) ㄴ은 척도의 하위 끝인 0(zero)로부터 척도의 상위 끝인 1을 향하여 $1/3$ 지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16) ㄱ은 ‘이 병 참 = $1 - 1/3$ ’이라 할 수 있고, (16) ㄴ은 ‘이 병 참 = $1/3$ ’이라 할 수 있겠다.

측정 단위를 n 이라 한다면 (15) ㄱ과 (16) ㄱ은 ‘이 병은 물이 n 비었다’로 일반화 될 것이고, (15) ㄴ과 (16) ㄴ은 ‘이 병은 물이 n 찼다’로 일반화 될 것이다. 그러므로 (15) ㄱ과 (16) ㄱ의 측정 함수의 값은 1에서 n (측정 단위)를 뺀 것과 n (측정 단위)이 0보다 값이 크고 1과 같거나 1보다 작아야 한다. 그리고 (15) ㄴ과 (16) ㄴ의 측정 함수의 값은 n (측정 단위) 자체이고 n 은 0보다 크고 1과 같거나 1보다 작아야 한다. 따라서, (15) ㄱ과 (16) ㄱ 그리고 (15) ㄴ과 (16) ㄴ을 형식화 하면 다음의 (19)와 같을 것이다.

$$(17) (1-n) \wedge (0 < n \leq 1)$$

$$(n) \wedge (0 < n \leq 1)$$

3. 비대칭 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다음의 (20)ㄱ과 ㄴ은 비대칭 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깨끗하다’와 ‘더럽다’를 서술어로 한 원구문들이다.

(20)ㄱ. 이 방은 깨끗하다.

ㄴ. 저 방은 더럽다.

(20)ㄱ과 ㄴ에서 ‘이 방’ 또는 ‘저 방’이 ‘깨끗하다’와 ‘더럽다’로 판단하는 그 기준은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달린 문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을 두고 사람에 따라 ‘깨끗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더럽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지룡(1987)에 따르면 ‘깨끗하다’와 ‘더럽다’와 같은 형용사들에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자의 일관된 기준을 지닌다고 하였다.⁵⁾ 이것은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이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ㄱ은 ‘이 방’이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보다 더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20)ㄴ은 ‘저 방’이 속하는 범주 속의 평균보다 더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ㄱ은 화자가 가진 기준에서 볼 때 ‘이 방이 깨끗하다’라는 의미이고 (20)ㄴ도 그러한 기준에서 ‘저 방이 더럽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18) ㄱ과 ㄴ의 문장들은 (7)ㄱ과 ㄴ의 문장들과 의미적 차이를 드러낸다.

(21)ㄱ. * 이 방은 1/3 깨끗하다.

ㄴ. * 이 방은 1/3 더럽다.

5) 임지룡(1987 : 157)은 ‘깨끗하다’와 ‘더럽다’들이 ‘옷’, ‘방’, ‘자연’, ‘마음’ 등과 같이 지시 대상이 바뀌더라도 ‘깨끗하다’와 ‘더럽다’에 대한 개인의 판단기준에는 동일한 잣대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1) $\neg$ 과 $\neg$ 은 비대칭 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깨끗하다’와 ‘더럽다’ 앞에 수적(numerical) 단위를 사용한 문장이다. 그런데 (21) $\neg$ 과 $\neg$ 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깨끗하다’와 ‘더럽다’에 의해 정의된 척도는 수적으로 등 급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2) $\neg$. 이 방은 깨끗하다. $\Rightarrow$ $\neg$. 이 방은 더럽지 않다.

$\neg$. 이 방은 더럽지 않다. $\Rightarrow$ $\neg$. 이 방은 깨끗하다.

(23) $\neg$. 저 방은 더럽다. $\Rightarrow$ $\neg$. 저 방은 깨끗하지 않다.

$\neg$. 저 방은 깨끗하지 않다. $\Rightarrow$ $\neg$. 저 방은 더럽다.

(22) $\neg$ 은 (22) $\neg$ 을 함의하고 동시에 (22) $\neg$ 은 (22) $\neg$ 을 함의한다. 또한 (23) $\neg$ 은 (23) $\neg$ 을 함의하고 동시에 (23) $\neg$ 은 (23) $\neg$ 을 함의한다. 이것은 ‘깨끗하다’와 ‘더럽다’는 모순(contradictories)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Rusiecki(1985)는 이런 이유 때문에 (20) $\neg$ 과 $\neg$ 의 의미는 특정기능에 의하여 표시될 수 없다고 하였다. Rusiecki(1985)의 공식을 이용하여 (20) $\neg$ 과 $\neg$ 의 의미를 공식화 하면 다음 (24)와 같고 일반화 하면 (25)와 같다.

(24) $\neg$. 이 방은 깨끗하다. = 이 방은 더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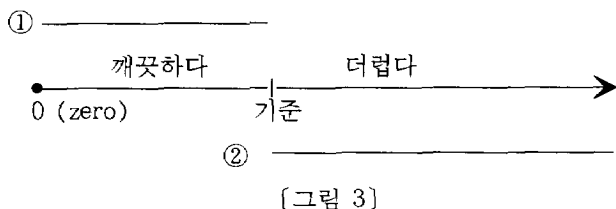
$\neg$. 저 방은 더럽다. = 저 방은 깨끗하지 않다.

(25) $\neg$. NP는 A = NP는 not A

$\neg$. NP는 = NP는 not A

(20) $\neg$ 과 $\neg$ 에 대한 의미는 Rusiecki(1985)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에서 (20) $\neg$ 에 대해 ‘화자의 기준에서 볼 때, 이 방이 깨끗하다’라는 의미이고 (20) $\neg$ 에 대해 ‘화자의 기준에서 저 방이 더럽

다’는 의미라 하였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7) ㄱ과 ㄴ이 상대적인 기준을 가진다면 (20) ㄱ과 ㄴ을 척도 위에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①은 (20) ㄱ에서의 ‘깨끗함’이 작용하는 영역이고 ②는 (20) ㄴ의 ‘더러움’이 작용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20) ㄱ의 의미는 기준보다 더 깨끗하고 ‘기준’은 ‘0’(zero) 일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20) ㄴ의 의미는 ‘기준보다 더러우며, 기준은 ‘0’(zero) 일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⁶⁾

4. 단항척도 형용사의 원구문

다음의 (26) ㄱ과 ㄴ은 단항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인 ‘붉다’와 ‘푸르다’를 서술어로 한 원구문이다.

- (26) ㄱ. 이 꽃은 붉다.
 ㄴ. 이 꽃은 푸르다.

6) (20) ㄱ과 ㄴ에 대해서 Rusiecki(1986)와 다른 의미 해석을 한 번 시도해 본데 불과하다. (20) ㄱ과 ㄴ에 대한 의미의 해석에 대해 더 세밀한 작업이 요구될 것 같다.

(26)ㄱ과 ㄴ의 ‘붉다’와 ‘푸르다’는 개방척도를 정의하는 형용사를 서술어로 하는 (7)ㄱ이나 ㄴ과 달리 (26)ㄱ은 지시물인 ‘이 꽃이 속하는 집합에서 평균보다 더 붉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붉다’가 특별한 ‘꽃’에 대해서 말해질 수 있으나 모든 꽃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26)ㄴ도 지시물인 ‘이 꽃’이 속하는 집합에서 평균보다 더 푸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도 (26)ㄱ과 마찬가지로 ‘푸르다’가 특별한 ‘꽃’에 대해 말해질 수 있으나 모든 꽃에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26)ㄱ이나 ㄴ과 같은 문장의 해석은 지시물에 ‘붉음’의 자질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7)ㄱ. *이 꽃은 1/3 붉다.

ㄴ. *이 꽃은 1/3 푸르다.

위의 (27)ㄱ은 단항척도를 정의하는 ‘붉다’ 앞에 수적 단위를 첨가한 문장이고, (27)ㄴ은 단항척도를 정의하는 ‘푸르다’ 앞에 수적 단위를 첨가한 문장이다. 그런데 (27)ㄱ과 ㄴ은 자연스럽게 못하다. 이것은 ‘붉다’ 또는 ‘푸르다’에 의해 정의된 척도가 수적으로 등급화 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이 점에서 단항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인 (26)ㄱ과 ㄴ은 제한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인 (15)ㄱ이나 ㄴ과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 본 정도 형용사의 원구문에 대한 의미의 고찰에서 얻어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방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은 비교구문과 같이 비교의 의미를 가진

다. 그러나 비교구문과 달리 이것은 지시 집합(reference set)에 의존해서 그 의미가 해석된다. 그리고 제한척도 형용사의 원구문과 달리 수적 단위를 사용하지 못한다.

2. 제한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은 개방척도 형용사의 원구문과 달리 비교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한 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은 개방척도 형용사의 원구문과 달리 수적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3. 비대칭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은 개방척도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으나 비교의 기준에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한척도 형용사의 원구문과 달리 수적 단위를 사용하지 못한다.

4. 단항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은 개방척도 형용사와 달리 비교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제한척도 형용사의 원구문과 달리 수적 단위를 사용하지 못한다. 비대칭 척도 형용사의 원구문에 대한 의미 해석은 보다 세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참 고 문 헌

-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배영남(1982), 영어 형용사 'tall'의 분석, 어학교육 제13집.
 염선모(1987), 국어 의미론, 형설출판사.
 이승명(1992), 국어 비교 구문과 전제, 수언어문논집 제19집.
 임지룡(1987), 국어 대립어의 의미 상관체계, 형설출판사.
 임지룡(1987), 정도 그림씨의 의미대립 특성, 언어 제13권 1호.
 정인수(1992), 국어 형용사의 의미 분석, 靑河金炯秀博士華甲紀念論叢.

정인수(1994), 국어 형용사의 의미 자질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rtsch, Renate and Venneman, Theo(1972), Semantic Structures,
Frankfurt/Main : Athen um Verlag

Rusiecki, Jan(1985), Adjectines and Comparison in English,
Longman.